

특
자
기
고

○ 불가리아에서 본 동구 음악계 현황 참예술인 모습 발전의 값진 기회

지난 2월19일 불가리아 방송교향악단정기연주회 Solist로 초청받아 소피아의 불가리아 Concert Hall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협연하고 돌아왔다.

이미 우리에게 동구권의 음악 수준이나 그들의 변화는 생활 모습들이 그리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은 아니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 무색하게도 직접 그 곳에 들어가서 느낀 감동과 놀라움은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뜻을 실감케 했다.

Sofia에서의 4박5일간의 일정동안 내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극히 일부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했지만 너무나도 순수하고 솔직하고 또한 지식과 실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느껴졌다. 현재 정부중앙은행이 지불보충불능 상태이고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졌고, 40여년간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노력의 맛과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이 쪼들린 그들의 모습에서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걸지 못할 생각도 못했었다. 하지만 리허설과 연주를 통해 그나라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끼며, 또한 그 수준 높은 연주와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연주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나 자신의 교만했음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되었는지 모른다. 무대리허설을 위해 연주회장이라고 안내를 받아 들어가 갈 때까지는 하더라도 결코

기대 너무도 허술한 창고를 연상케 하는 첫 인상에 솔직히 실망했었다. 하지만 막상 객석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그 아름답고 깨끗

로 전에 카라얀이 와서도 극찬했었다고 한다. 중간에 화재로 인하여 다시 재건되면서 무대에 파이프오르간도 설치되고 내부도

대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로 1945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동구에서 상당한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원들은 대부



○ 훌륭한 음향효과를 자랑하는 불가리아 콘서트홀에서 협연하는 필자의 모습.

음악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 부러워 완벽한 연주 위한 철저한 연습진행

하게 잘 정돈된 무대와 미리 연습을 하고있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동시에 느끼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과 같았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객석 1,300석정도의 무대 자체는 그리 큰편은 아니지만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불가리아 Concert Hall은 훌륭한 음향효과

다시 새롭게 치장되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Hall로, 공산당원들이 새로 지어놓은 큰 연주회장을 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는 듯 했다. 내가 함께 협연한 불가리아방송교향악단은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내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소피아필, 소피아오페라필과 함께 불가리아 3

본 소피아 국립음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래에와서는 창단원들의 퇴진으로 새롭게 공부한 신진들이 많이 들어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연주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고 상임지휘자 Mr. Vassil이 설명해 주었다. 지휘자 Mr. Vassil Kazandjiev는 55세로 러시아태생이며 소피아와 독일에서 학위를 얻고, 현재 소피아음악대 작곡·지휘과교수로 재직중이고, "Sofia Solist Chamber Orchestra"를 직접 창설하여 전세계 순회공연을 갖는 바 있는 그쪽에 서는 유명한 학구파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마치 가까운 친척 아저씨 같은 자상함으로 연주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가 하면, 오케스트라 연습 때는 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이 부분적으로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짚고넘어가는 완벽한 연주를 위한 자기관에 남는다. 연주당일 오전에 한번 더 오케스트라와 리허설이 있었다. 그전까지의 모든 불안했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았다. 조금씩 기대도 되고 속심도 생겼다. 연주순서는 베를리오즈 서곡,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그리고 슈만 교향곡 4번이었다. 내가 연주장에 가 있을때면 여러 당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왔다. 내가 그들과 연주하게 된 첫 한국인 Solist라고 했다. 우리나라와는 아직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긍지를 품기에는 그들의 만남이 너무나도 졌었다.

연주를 지켜보던 청중들의 반응 또한 감동적이었다. 여러차례의 커튼Call과 Bravo로 환호해주던 청중들. 너무나 어려운 생활속에서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이 그들의 삶속에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가보다. 음악을 그토록 사랑하기에 그 오랜 사회주의의 억압된 세월 속에서도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 나눌 수 있었던게 아닐까. 지휘자와 단원들은 연주를 마치고 아주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대사님과 참사님, 두분이 직접 나와 주셨다. 연주전에 점심식사에도 초대해 주시고, 연주회에 꽃다발까지 보내주시는 등 크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지휘자와 점심을 같이하며 전담되었던 연주와 불가리아 음악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주에 대해서는 무척 만족해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진지한 감정과 깊은 서정성을 지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느껴졌다 다시한번 같이 연주할 수 있게 되길 희망했고, 자기들의 모든 사정이 나아지는데도 재초청할 뜻을 전했다. 나 또한 그들에게서 참된 예술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었고, 그런 뜻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Sofia공방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창밖에 펼쳐지는 거리와 건물들, 사람들의 인상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보다도 무표정하고 어려운 생활에 쪼들려 있는 모습이었으나, 며칠간의 일정 동안 내 마음 속에 자리잡은 그들의 더없이 정겹고 따뜻한 마음은 지금까지도 가슴 뭉클하게 남아 있다.

이 규 영
(음대 강사)

문화단신

노래책 '철의 노동자'발간

도서관에서 91년도 전노협 노래책 '철의 노동자'를 발간했다.

노래단체 및 개인 작곡가들을 통한 공모 방식을 취해 추천된 곡들을 중심으로 엮여졌으며, 각 노래에 대한 주석과 함께 노래와 관련된 글을 같이 게재했다.

총2백24곡이 담겨 있는 이책은 90년 창작된 노래뿐만 아니라 91년에 창작된 노래중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래이지만 이후 널리 불릴 것으로 보여지는 노래들 최신곡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문의:744-7818, 가격:3천3백원)

노찾사 정기 및 전국 순회공연가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오는 13, 14일 오후4시와 7시 세종대학교 대강홀에서 여덟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3집 음반 출간에 따라 참세상을 열망하는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하고자 서울의 정기공연을 필두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공연엔 전국순회공연은 건전한 노래 문화를 정착시키



고, 그 문화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문화는 물론 지역문화 전체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한 첫 번째 기획 공연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연문의:338-9948)

예당, '왕이된...'공연

예당소극장에서는 개관3주년을 기념으로 '왕이된 허수아비'를 오는 12일부터 5월31일까지 오후4시30분과 7시30분 공연을 갖는다.

지난 88년 5백회 공연을 한 바 있는 이 작품은 한 장물병이가 우연히 하게된 연극에서 인간의식의 부재와 인간성 상실로 우리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그려내는 내용이다.

한 인물을 통하여 허구적 이야기를 사실화 시킴으로써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이다.

그림의 바람받이 동향과 전망展 열려

오는 8일까지 서울 미술관서

서울미술관에서는 오는8일까지 동향과 전망展 '바람받이'를 갖는다. 작년 '새벽의 숨결'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동향과 전망展은 '명정 그대로' 지난해의 미술작품이 새해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전시이다. 김영진, 최진욱등 여섯 화가의 날카로운 현실인식이 담긴 작품들이 1, 2층의 각 실별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 기획을 맡은 심광현씨는 "여러측면에서 미술문화의 외부적인 발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절적인 발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떤 한쪽에 편향됨이 없이, 미술계 주목할만한 동향과 전망을 찾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라며 기획의도의 처음을 말한다.

김영진씨의 노동현장의 능동적 접근방법을 통한 '노동자', '노동'과 현실주의적 사회 비판을 다룬 '정치와 TV'가 돋보이

며, '미인도'의 신지철씨는 직관과 정서에 호소하는 시적인 접근방법을 구사하여 '실명하는대신 분명하게 보여주세요'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현사회에서 예술이라고 보다 오락물에 가깝다고 취급하는 만화를 김우진씨는 회화적 형식을 도입하여 만화로서 현실발견과 현실비판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새롭다.

오지근씨의 작품 경우 신체의 특수한 지각경험을 매개로 전체적인 공간의 영상을 자아내게

다. 김진욱씨의 '생각과 그림', '그림의 시작'등의 작품은 주로 화가 자신의 화실을 그림의 주제나 소재로 삼는 일종의 토론토로

◇신지철작

'미인도'(美人圖)

(캔버스에 아크릴릭 115x150cm, 1990)



미술계 전체의 방향성 제시코자 마련 만화에 회화형식 가미한 그림 선보여

하는 '집없는 사람들'과 무의미하고 삭막한 공간을 인간적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훌륭한 리얼리즘 회화의 오랜 전통 속에 깃들여 있는 연금술적 매력이 담겨 있는 '용산', '무악재'가 있

이적 그림이며, 그림내에 현실의 역동적인 세계를 재현해 내고 있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축수를 통해 세계의 깊이를 파헤칠 수 있는 리얼리즘 회화의 오랜 전통 속에 깃들여 있는 것으로, 자기성찰적 회화의 리얼리즘이라 불

수 있다.

한편, 미술평론가 이영욱씨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선택된 작가들과 전시된 작품들이 기획자의 의도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들 중 다수가

나름의 독특한 양식과 언어의 깊이를 갖추고 관객들에게 내밀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덧붙여 '바람받이'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언덕'이라는 뜻, 현재 우리문화의 상황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거센 바람을 맞는 시기라고 볼때 이번 전시회는 끈질기게 이에 대면해 나가고자하는 한 방법의 모색일 것이다. (이효숙 記者)



원래적 의미의 중산층은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할지라도 소수의 임금노동자만을 고용하면서 독립경영을 행하는 독립자영업자층을 의미한다. 예에는 수공업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속한다. 이들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부르조아 혁명기)에 진보적 세력으로 역할하였지만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놓이면서 양극분해의 과정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중산층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와 소자본가를 포함하는 역사적 개념이라할 수 있는데, 변화된 자본주의의 현실을 옹호하는 사회계층론의 입장에서 논의되는 중산층이 갖는 의미는 그 외에 신중간층과 노동자계급 상층을 모두 포괄 시킨다. 사회계층론은 자의적인 계층구속 의식과 학력수준, 수입정도, 재산 소유정도 등의 임의적인 분류지표를 사용하여 인구 중 중산층의 비율을 산정한 후 이

중산층

자기 자본에 의한 독립경영

강재식
(대학원 석사(3기·사회학))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아빠와 회사를 찾은 은이랑
▶(주)대우정밀주 상무(특차사업장)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은이랑 정은이랑



“아빠의대학시절은 참어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려 입고, 복사기도 없었어. 필요한 자료들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어. 말이지. 하지만 남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어쩌다 여유라도 생기면 고무줄처럼 잘린 토끼고기찌게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감론을박 열면 토끼로 발이 새는 줄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열기가 배어나오는 듯 살구나. 아빠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 모래시막을 뚫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슬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란단. 아빠처럼 너에게도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곧은 눈을 가져야지. 왜 학문을 하는가, 공부하는게 뭐한 것인고도 많이 생각해 보고... 아빠 때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찌워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구나.”

성실하게 뿌린 씨앗만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